논어 5편 공야장 7장 · 원문·풀이

子曰：「道不行，乘桴浮於海，從我者，其由與？」子路聞之喜。子曰：「由也，好勇過我，無所取材。」

독음 · 자왈 도불행 승부부어해 종아자 기유여 자로문지희 자왈 유야 호용과아 무소취재

쉬운 풀이(요약) · 도가 행해지지 않아 뗏목을 타고 바다로 가면 자로가 따르겠다고 했다. 자로가 좋아하자 용기는 뛰어나지만 헤아림이 부족함을 짚었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子 아들 자 / 曰 가로 왈 / 道 길 도 도 / 不 아닐 불

行 다닐 행 행 / 乘 오를 승 승 / 桴 마룻대 부 부 / 浮 뜰 부 부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 海 바다 해 해 / 從 좇을 종 종 / 我 자기 아 아

者 놈 자 / 其 그 기 / 由 말미암을 유 유 / 與 너울너울할 여 여

路 길 로 로 / 聞 들을 문 문 / 之 갈 지 / 喜 기뻐할 희 희

也 어조사 야 / 好 좋을 호 / 勇 날랠 용 용 / 過 지날 과 과

無 없을 무 무 / 所 바 소 소 / 取 거둘 취 취 / 材 재목 재 재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